

# 증권사, CFD 회복세에 수수료 인하·주간거래 서비스 확대

(차액결제거래)

CFD 명목 잔액 1조2192억  
역대 최저치비 20%가량 늘어

유안타증권, 온라인수수료 0.10%  
하이투자증권, 美 주식 CFD 개시  
메리츠증권, 美 주간거래 운영·확대

금융 당국이 투자자 요건과 정보 투명성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침체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자, 일부 증권사들이 주간거래,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액은 1조2192억원이다. 이는 라덕연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해 3월(2조7697억원)에 비해 56% 넘게 감소한 수준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5월(1조169억원) 대비 20%가량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여의도 증권가 야경.

/유투이미지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으로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규제 강화에도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CFD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법상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9.5%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CFD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갖는 만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내면 된다. 또한 CFD는 종합소득세 대상 및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해

외 주식에 직접 투자 시 2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CFD 계좌를 통하면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CFD는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도 가능하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단 국내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CFD 시장은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서 “국내와 해외 증시가 최근 상승하는 등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대금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들이 CFD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이 이탈했으나 최근에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CFD가 살아나기 시작하자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서비스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7일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0.15%에서 0.10%로 인하했다. 지난해 국내 주식 CFD를 도입한 하이투자증권은 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미국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500, 나스닥 100, 다우 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리츠증권도 지난해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를 운영, 확대에 나섰다. 증거금률이 100%인 미국 CFD 안심계좌에 한해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에 대한 투자심리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공매도 금지로 매도 포지션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매도 포지션도 가능한 만큼 CFD 시장이 더 활성화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TDF 10兆 시대... 자산운용사 '몸집 불리기'

(타깃데이트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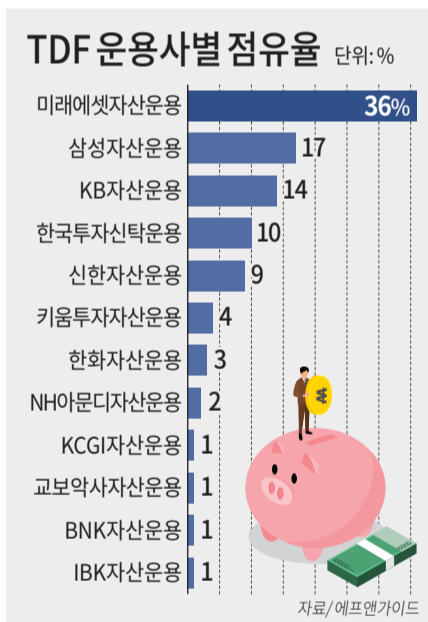
시장 설정액, 이달 기준 9조7722억  
미래에셋운용, 점유율 36% '1위'  
은퇴 시점 따라 수익률 1위 천차만별

은퇴시기에 맞춘 노후준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 TD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도 TDF 수익률이나 TDF 점유율의 규모 순위를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8조4028억원을 기록한 '국내 TDF 시장 설정액(수탁고)'은 현재 9조7722억원으로 증가했다.

TDF는 디폴트옵션 선택지에 작년 7월 12일부터 포함되며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시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TDF'는 펀드 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DF의 성장세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통한 자금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게 작



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들은 TDF 점유율을 두고 경쟁 중이다. 9일 설정액 기준으로 TDF 운용사별 점유율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6%를 차지하며 1위를 고수했다. 뒤이어 ▲삼성자산운용 17% ▲KB자산운용 14% ▲한국투자신탁운용 10% ▲신한자산운용 9% ▲키움투자자산운용 4% ▲한화자산운용 3% ▲NH아문디자산운용 2%로 점유율을 차지했다. KCGI·교보약사·BNK·IBK자산운용 등은 1%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TDF 점유율 부분에서는 KB자산운용의 약진이 돋보인다. 빠르게 TDF 순자산을 늘린 KB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제치고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점유율로 보면 상위 5개 순위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맞붙고 있지만, 투자자의 은퇴 시점(벤티지)에 따라 1위 자산운용사는 천차만별이었다. 2025년 벤티지에서는 'NH-Amundi하나로TDF'가, 2030·2040·2045년 벤티지에서는 'KCGI프리덤TDF'가, 2035년 벤티지에서는 '미래에셋우리아이TDF'가, 2050년 벤티지에서는 '마이다스기본TDF'가, 2055년 벤티지에서는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TDF 수익률 평균으로는 '미래에셋우리아이TDF'가 15.64%,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 14.93%로 각각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운용사 점유율에 비해 선전한 TDF는 'KCGI프리덤TDF'(14.59%)과 '마이다스기본TDF'(15.20%)이 두각을 나타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디폴트옵션 가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의 TDF 판매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엑스, 총 운용자산 500억달러 돌파

(미래에셋운용 美 ETF 운용 회사)

올해 반년만에 70억달러 이상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ETF 운용 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의 총 운용자산(AUM)이 5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엑스는 8일 기준 미국 현지에서 93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총 운용자산은 503억달러(원화 기준 69조 6000억원)로, 미국 현지 ETF 운용사 중 13위다.

글로벌엑스는 2018년 미래에셋그룹 박원주 회장(GSO)이 인수한 미국 ETF 운용사다. 인수 당시 1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운용자산은 2020년말 209억달러, 2023년말 425억달러로 증가했다. 올 들어 6개월여만에 70억달러 이상 증가해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엑스는 2008년 설립됐으며 초기부터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보여 미국 현지 투자자들에게 '혁신적 ETF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인공지능과 인프라 개발 등 혁신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과 커버드콜 전략으로 대표되는 인컴형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Global X Nasdaq 100 Covered Call(QYLD US)'는 순자산 약 83억 달러의 미국 대표 커버드콜 ETF다. 'QYLD' 등 글로벌엑스의 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16개, 총 순자산 규모 129억달러에 달한다.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PAVE US)'는 미국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원자재, 중장비, 건설업, 디지털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엑스의 대표 테마형 ETF로,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순자산 약 73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총 순자산은 6월말 기준 1270억달러(175조원)다. 이는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156조원)보다 큰 규모다. /허정윤 기자

#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오는 12일~16일 청약 가능  
이달 발행한도 총 2000억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두 번째 판매를 시작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시됐으며 지난 달

첫 판매에 이어 이달 12일 두번째 판매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전 금융권 단독 판매 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한도는 1조원이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7월 청약일은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7월 발행한도는 총 2000억원으로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다.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3.275%, 20년물 3.22%로 가산금리(세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각 0.15%, 0.3%를 적용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 테슬라 보관액, 직전 달비 41.38% 늘어

해외주식 Click

주가 급등에 엔비디아 제치고 1위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관액이 직전 달보다 약 41% 가량 늘어났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인을 향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반응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149억7094만달러(약 20조 7093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이었던 지난달 5일(105억8856만달러)보다 약 41.38% 급증한 규모이다. 당시에

는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던 엔비디아의 보관액이 1위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테슬라로 뒤바뀐 상황이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에 저가 매수로 인식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사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서학개미들의 보관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인 '테슬라코노믹스'는 “테슬라는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위”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신하은 기자